화순에 '진각국사 기념관'이 건립된다

진각국사 837주년 기념 학술대회서 화순군 공개

4월 11일 화순군민회관에서 열린 진각국사 837주년 학술대회 모습. 이날 구충곤 군수는 진각국사 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불교 중흥조로 일컬어지는 진각국사 혜심 스님의 기념관이 화순에 건립된다. 진각국사선양회(회장 대현)가 4월 11일 전남 화순 군민회관에서 개최한 '혜심 진각국사 탄신 제837주년 기념 제2회 학술대회 및 제9회 다례재'에서 구충곤 화순군수는 진각국사기념관을 건립할 것을 밝혔다.

이날 인사말에서 구충곤 군수는 "화순에서 출생한 진각국사 혜심 스님은 보조국사의 법맥을 이어 한국 간화선 전통을 확립시킨 선구자이지만 그 업적에 비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며 "혜심 스님의 선풍을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다. 먼저 화순군민회관이 있는 남산에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현스님은 "오늘 이 자리는 혜심 스님의 삶을 되돌아 보고 그 수행정신으로 실천행을 펼치기를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1부 기념식에 이어 학술대회가 진행됐다. 학술대회에서는 이희재 광주대 교수의 사회로 △조명제 신라대 교수의 '혜심의 공안선 이해와 〈선문염송집〉', △김영미 이화여대 교수의 '진각국사 혜심의 여성성불론' △김방룡 충남대 교수의 '진각 혜심의 선사상 체계와 불교사적 의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최정렬 조선대 명예교수, 이중표 전남대 교수, 이희재 광주대 교수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명제 교수는 "고려 후기 선은 공안선의 수용과 전개가 주된 흐름이었다. 종래 연구에는 수선사(순천 송광사)를 개창한 지눌 스님의 역할에 주목해왔다"며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지눌 스님 이후 혜심 스님의 공안선 수용에 대한 새로운 연구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미 이화여대 교수는 "혜심 스님은 당시로는 파격적인 여성 성불을 인정하고 비구니들에게 문호를 열었다. 이는 생활에서 사부대중이 화두참구 토론하는 대중불교의 단편"이라고 말했다.

김방룡 충남대 교수는 "혜심 스님의 선사상 속에는 조사선과 공안선, 간화선이 공존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선과 교, 정토 및 밀교적 요소 뿐만 아니라 유교와 불교의 조화 또한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학술대회에 이어 3부 행사로는 다례재가 진행됐다. 다례재는 광주 미륵사(주지 목언) 차 공양팀이 집전했다.

■진각국사 혜심 스님은?

진각국사 혜심 스님(1178~1234)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보조국사 지눌 스님 밑에 출가했다. 1210년 지눌 스님 입적 후 수선사 2대 주지로 수선사를 확장하고 선풍을 더욱 진작시켰다. 혜심 스님은 고려 고종이 즉위한 1213년 선사(禪師)에 제수받고 1216년 대선사로 올려졌다. 1234년 6월 26일 문인인 마곡(麻谷)에게 "이 늙은이가 오늘은 너무 바쁘다"라고 말하고 가부좌한 채 앉아서 입적했다. 이때 나이 56세, 법랍 32세였다. 혜심 스님의 저서로는 〈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 30권을 비롯해 〈심요〉(心要), 〈조계진각국사어록〉(曹溪眞覺國師語錄) 등이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진각국사선양회장 대현 스님을 비롯해 前선암사 주지 상명 스님,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과 이민수 광주불교방송 사장, 구충곤 화순군수 등 2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서 불교관 운영

불자선수 및 임원 대상 명상 프로그램·연합법회 등 진행

오는 7월 광주에서 열리는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불교관이 운영된다. 광주시(시장 윤장현)는 4월 7일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종교지도자 간담회를 열고 대회기간 외국인 불자선수들과 불자임원들을 위한 '불교관' 운영 방침을 밝혔다.

윤장현 시장은 "광주의 가장 큰 국제행사"라며 "참가자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종교계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광주불교연합회 연광 스님은 "광주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연합회 차원에서 대회기간 불교관에서 예불과 명상, 연합법회 등의 프로그램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지역 스님 9명과 함께 개신교계 목사 10명 등이 초청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의 종교계 협조를 요청받았다.

한편 전세계 대학생 종합스포츠 대회인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7월 3일부터 14일까지 광주와 전라남·북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총 21개 종목에 170여 개국 20,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장수 죽림정사, 백용성조사 봉찬대재

독립운동가이자 대각교운동을 펼친 백용성 스님 75주기를 맞아 용성스님 탄생지인 장수 죽림정사에서 봉찬대재가 열렸다.

4월 12일 죽림정사 용성교육관에서 개최된 봉찬대재에는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을 비롯해 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 신봉수 상무이사, 세계불교청소년교화후원회 박상록 사무국장, 정토회원 등 600여 대중이 동참했다.

이날 봉찬대재는 7여래불·69전등조사·7대사·역대 104조사에 대한 다례재, 용성진종조사 입멸 75주기 추모법회,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순으로 진행됐다.

다례재에 이어 백용성조사의 유훈십사목 낭독 등이 이어져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용성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되새기는 자리로 진행됐다.

법륜 스님은 이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용성종사와 같은 애국 선열지사들의 조국과 민족을 위한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독립운동으로 나라와 민족 사랑을 실천한 스님의 정신을 이어나가자"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제8회 한·중·일 3국 평화의 종 타종식

완도 신흥사 주최, 4월 14일 일본 입석사 등 참가

완도 신흥사가 4월 14일 개최한 평화의 종 타종식에서 한중일 3국 관계자들은 우호증진의 시간을 가졌다.

완도 신흥사(주지 법일)는 4월 14일 완도군청 관계자, 장보고 대사 관련 단체, 신흥사 신도와 지역민들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중·일 3국 평화의 종 타종식을 열었다.

이날 타종식에서는 일본 야마가타현의 공양미 전달과 함께 타종인사 소개, (사)장보고연구회 정영래 회장의 축사와 타종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일 스님은 "장보고 대사는 당시 신라와 당,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간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북아 평화를 견인했다"며 "장보고대사의 역할과 업적에 보은의 마음을 담아 우호를 촉진하고 세계평화를 기원하자"고 당부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평화의 종 타종식은 장보고 대사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한·중·일 3국 우호촉진과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완도 신흥사, 중국 적산법화원, 일본 야마가타현 입석사 등 세 곳에 동시에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일본 야마가타현 입석사에서 부처님께 바칠 공양미를 직접 가지고 방문해 그 의미를 더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정읍 내장사, 대웅전 상량식 봉행

25억원 예산투입, 5월 25일 부처님오신날 준공 목표

4월 7일 열린 내장사 대웅전 상량식에는 200여 명이 동참해 대웅전의 순조로운 복원을 기원했다.

2012년 10월 화재로 소실된 전북 정읍 내장사 대웅전의 복원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4월 7일 상량식이 열렸다.

상량식에는 내장사 주지 혜산 스님을 비롯해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선운사 원로 재곤 스님, 대우 스님, 벽련암 진공 스님, 김생기 정읍시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해 대웅전의 순조로운 복원을 염원했다.

상량식은 산신제에 이어 타종, 경과보고, 발원문 낭독, 축사, 상량문 낭독, 상량 순으로 진행됐다.

복원 중인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각지붕 형태로 25억 여 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 약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연면적 166㎡로 대웅전 주변에는 높이 1.4m의 석축이 설치된다.

혜산 스님은 "각계의 정성으로 공사를 추진해 상량식을 갖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우화정 개축, 조선왕조실록 보존터 성역화 사업 등 숙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구례 화엄사 염불봉사단 출범

구례 화엄사(주지 영관)는 4월 14일 신도들의 체계적인 사회회향 활동을 위해 '화엄사 염불봉사단'을 발족했다.

화엄사 총무국장 효광 스님을 단장으로 이날 창립된 봉사단은 30여명의 봉사단원이 참여해, 구례지역은 물론 인근 순천, 광양지역의 다양한 염불봉사활동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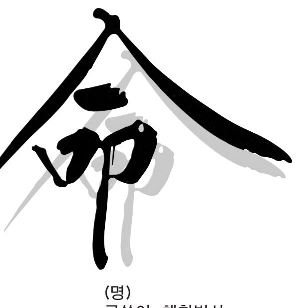
영관 스님은 발대식 인사말에서 "부처님은 한평생을 힘들고 어려운 중생을 구했다. 이는 중생의 고통에 대한 절절한 공감과 울림이 바로 수행임을 보여주신 것"이라며,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봉사활동과 사회회향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자신의 수행을 가꾸는 것은 물론 화엄정토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엄사는 매주 화요일 불교의식의 이해, 불교자원봉사의 의미, 염불봉사에 대한 기본 교육을 진행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 영가천도의 중요성 "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